

Agile

홍콩과 선전을 발로 배우는 여정

프롤로그: 여정의 시작

1부: 홍콩 - 글로벌 허브에서의 통찰

2부: 과거와 현재의 조우 - 홍콩의 다면성

3부: 선전 - 미래를 향한 도전

4부: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

5부: 귀환과 반추 - 미래를 향한 발걸음

에필로그: 미래를 향한 여정

여정의 시작

이 여행은 홍콩과 선전 두 도시를 여행하며 변화와 혁신을 경험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아시아 경제의 변화를 직접 보고 느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홍콩은 오랫동안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역사적인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왔습니다. 한편, 선전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거두며 미래를 향한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두 도시의 만남은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혁신의 접점을 탐구하기에 더없이 적합한 배경이 됩니다. 두 도시의 만남은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혁신의 접점을 탐구하기 위해 후향통과 선향통의 딜레마라는 주제를 통해, 홍콩과 선전 간의 경제적 연결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도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행은 더 깊이 파고들어, 두 지역 간의 경제적 유대 관계와 그로부터 비롯된 다양한 과제들을 탐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여정은 미래를 대비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는 중요한 첫 걸음으로 여겨집니다.



홍콩 - 글로벌 허브에서의 통찰

첫 발을 내딛다

BP International Hotel에 도착한 우리는 도시의 에너지를 느끼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홍콩은 그 자체로도 숨 가쁘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의 중심입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각자 여행의 기대와 설렘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홍콩의 본질과 그 변화를 깊이 이해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 Harbour Grand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첫 만남의 자리에서는 각자 여행에 대한 기대와 목적을 나누며 앞으로의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는 각자의 배경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홍콩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홍콩의 역사와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홍콩이 어떻게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구아우남(九龍牛腩)에서의 첫 식사를 하며 우리는 홍콩의 역사와 그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함께 나눈 대화는 홍콩이 아시아의 중요한 금융 중심지로 자리 잡기까지의 여정과, 이를 가능하게 한 역사적 배경을 되짚는 시간이었습니다. 식민지 시절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홍콩의 복잡한 역사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민첩함에 대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첫 발을 내딛는 우리의 여정은 홍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고자 하는 탐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홍콩이 가진 매력과 도전들을 체험하며, 우리는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했습니다.

밤의 홍콩

저녁이 되자 우리는 ICC Ritz-Carlton Hotel의 꼭대기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홍콩의 야경은 장관이었고, 고층 빌딩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홍콩의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로 자리 잡은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콩이 어떻게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홍콩의 정치적 변화가 금융 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 Elements Shopping Mall을 탐방했습니다.

이곳은 고급 브랜드 매장들이 늘어서 있는 곳이었지만, 현지 상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홍콩의 소비자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홍콩의 경제적 현실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콩은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현지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밤늦게 우리는 Temple Street Night Market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홍콩의 진정한 밤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기념품들이 즐비한 거리였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금융 허브의 모습 뒤에 숨겨진 홍콩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며, 사회적 불평등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홍콩이라는 도시가 가진 다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조우 - 홍콩의 다면성

전통과 현대의 만남

아침 일찍 우리는 The Peninsula 호텔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은 식민지 시대의 유산과 현대적인 고급스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홍콩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호텔의 역사적인 건축 양식과 현대적인 서비스가 어우러진 모습은 홍콩이 가진 과거와 현재의 융합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홍콩이 어떻게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1881 Heritage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경찰서와 소방서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킨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들이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된 모습을 보며, 우리는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공간은 홍콩이 어떻게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더블 데커 버스를 타고 홍콩 시티 투어를 했습니다. 높은 층에서 바라본 도시의 모습은 홍콩의 다양한 면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적인 상점들과 그 뒤로 솟아 있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홍콩이 가진 다층적인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변화와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홍콩이 어떻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홍콩의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을 탐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홍콩의 노력은, 이 도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 속의 평온

홍콩은 그 화려한 도시의 이미지와 달리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날 우리는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Repulse Bay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홍콩의 대표적인 해변으로, 고요한 바다와 그 주변의 자연이 어우러져 도심에서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홍콩의 자연 환경이 도시화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홍콩은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도 자연을 보호하고 사람들에게 심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Central에 위치한 IFC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홍콩의 금융 중심지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빌딩들이 늘어서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IFC 빌딩에서 홍콩이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비즈니스맨들과 활기찬 분위기는 홍콩이 여전히 경제적 중심지로서 강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홍콩의 자연과 도시화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균형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다음 일정으로 우리는 Tsim Sha Tsui로 페리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홍콩의 해상 교통은 이 도시의 중요한 교통 수단 중 하나로, 바다를 가로지르며 도시의 또 다른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페리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우리는 홍콩의 해상 교통이 이 도시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바라본 홍콩의 스카이라인은 홍콩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더욱 잘 보여주었고, 우리는 이 도시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sland Shangri-La 호텔에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금융과 비즈니스의 융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홍콩은 자연과 도시, 전통과 현대, 그리고 금융과 비즈니스가 하나로 어우러진 독특한 도시입니다. 티타임 동안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홍콩을 특별한 도시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평온과 도시에서의 활기가 공존하는 홍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도시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圖片所展示者是位於此時間球塔上層的時間球機械裝置，用以操控位於塔頂桅桿的時間球每天的升降。此裝置乃參考原來時間球的歷史文獻重新組構而成。

- (1) 時間球之懸升可透過人手轉動之舵輪或機動馬達操作，直至時間球升上塔頂桅桿的最高點為止。
- (2) 時間球塔內的時報系統設定於每日下午一時正當接收到短波收音機所發出的報時訊號時，便立刻觸發控制連接時間球機械裝置的電流線路，時間球隨即自動降下。

The time ball mechanism shown in this picture is installed on the upper floor of this Time Ball Tower. The mechanism is reconstructed with reference to historic documentations of the original. Via this mechanism, the time ball on the exterior of this tower is elevated and lowered on a daily basis.

- (1) The Time Ball is elevated by turning the steering wheel manually or by turning on the driving motor of the time ball mechanism until the Time Ball reaches the highest position.
- (2) At 1:00 pm sharp, an audio signal (from a FM radio installed in proximity to the time ball mechanism) will trigger off an electrical circuit that will cause the release and the descent of the Time Ball.



선전 - 미래를 향한 도전

국경을 넘어서

홍콩에서 선전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Hung Hom Station에서 Lo Wu Station까지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도전적이었습니다. 특히 비자 발급 과정과 심사를 통과하는 절차는 여행객에게 많은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통과하면서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의 물리적, 심리적 경계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두 지역 간의 정치적, 경제적 차이를 체감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전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전은 과거 작은 어촌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중국의 경제 특구로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인프라로 가득 차 있었고, 거리 곳곳에서는 활기찬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전이 어떻게 단기간 내에 이러한 성장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기회를 맞이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식사는 Shangri-La Shenzhen Hotel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중국 경제의 발전과 그 영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전은 특히 기술 혁신과 제조업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전의 성장 배경과 현재의 경제적 위상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이 도시가 앞으로 아시아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선전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경제적 실험장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가능성과 도전 과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

선전에 도착한 첫날 저녁, 우리는 Kaili Hotel에 체크인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첫인상은 선전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였습니다. Kaili Hotel은 현대적 시설과 편안한 분위기를 갖춘 곳으로, 선전의 활기찬 도시 에너지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후 각자 짐을 정리한 뒤, 우리는 첫날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선전의 놀라운 발전 속도와 그 속에서의 기회에 대해 감탄하며, 이곳에서의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Braised Chicken Pot Home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와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전은 중국의 디지털 경제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전환 노력과 그 영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전자 상거래, 핀테크, 스마트 시티 등 선전이 선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적인 기업들의 도전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중국의 디지털 경제가 단순히 기술 혁신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선전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경제가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선전의 디지털 경제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닌,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

선전의 심장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真功夫(Zhen Gongfu)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끼니를 넘어, 중국의 혁신적인 F&B 산업을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선전은 전통적인 중국 요리와 현대적인 서비스 모델이 결합된 다양한 식음료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혁신적인 서비스 방식과 품질 관리를 통해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F&B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KingKey 100 Mansion을 방문했습니다.

이 고층 빌딩은 선전의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면모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빌딩의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선전의 전경은 도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장관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도시는 선전의 경제적 발전과 도시화의 속도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전의 발전 속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도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후에는 Luohu Fake Market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모조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중국의 지적 재산권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둘러보며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지적 재산권 문제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접점

다음 일정으로 우리는 Heuksando Sushi Restaurant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동서양의 문화가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요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적인 요소가 가미된 메뉴는 동아시아 문화의 융합을 잘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선전이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재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Braised Chicken Pot Home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과 그 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선전은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디지털 혁신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선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와 경제적 변화를 체험하며, 앞으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전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 도시가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귀환과 반추 - 미래를 향한 발걸음

돌아오는 길

선전에서서의 여정을 마친 우리는 홍콩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Hung Hom Station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여행의 여정과 각자의 소감을 나누며 이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반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는 이번 여정이 그저 홍콩과 선전을 여행한 것 이상으로, 아시아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들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였음을 실감했습니다.

홍콩으로 돌아오는 동안, 우리는 McDonald's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곳에서의 간단한 식사는 도시의 일상적인 면을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선전과 홍콩의 차이점, 그리고 그 경계에 있는 복잡한 현실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우리는 각자가 가진 생각과 느낌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Island Shangri-La 호텔에서의 미팅과 홍콩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를 탐방했습니다.

이 미팅은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 잡은 이곳에서 우리는 홍콩의 경제적 중요성과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녁에는 Crystal Harbour Restaurant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여행을 마무리하며 각자가 배운 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아시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정의 끝, 새로운 시작

Lan Kwai Fong에 위치한 insomnia에서의 마지막 만남은 이 여행을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홍콩의 활기찬 밤거리에서 우리는 각자가 이번 여정에서 얻은 교훈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다짐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며, 이번 여행에서 얻은 통찰이 우리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홍콩 공항으로 이동하며, 우리는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각자의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얻은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도전에 더욱 힘차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여정

이번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홍콩과 선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하며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홍콩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로,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과 동시에 지역 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선전은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의 도시로서, 중국의 경제적 가능성과 디지털 혁신의 선두에 서 있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도시에서 경험한 모든 것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아시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이번 여정에서 느꼈던 열정과 영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에 맞서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애자일"한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후강통과 선강통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대로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며, 이번 여정에서 얻은 통찰이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화와 함께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Authors



김정배 전 조선일보 기자
42년생, 용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대한상사중재협회, 진로 근무
30년간 중국 역사인물자기 수집



임내규 전 산자부 차관
45년생, 서울고, 서울대 사회학과
상공부 사무관, 행정고시 11회
주 일본대사관 참사관, 특허청장



원일우 전 금호건설 대표
57년생, 신일고, 서울대 건축학과
79년 대우건설 입사, 대우건설 부사장
현 LT 삼보 고문

Authors



주상현 전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
61년생, 서울교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 행정고시 29회
전 국무총리실 부이사관, 제주도 지식경제국장



정승원 현 CT얼라이언스 회장
63년생, 경기고, 뉴욕대 통계학과
뉴욕 Price Waterhouse / Tax consultant
현 ChiaTai(正大) Group 회장 고문



허종미 전 국회의원 보좌관
63년생, 이화여대 법학과
이승희 전 국회의원 보좌관
현 미래문화관광콘텐츠포럼 사무총괄

Authors



임흥순 스토리페이 대표

68년생, 30년간 기업 운영
(주)에이아이미디어 대표
(주)동석광업 대표



유영준 전 국회의원원 비서관

71년생, 영국 유학
이승희 전 국회의원 비서관
현 호텔경영



옥윤형 현 블랙머트리얼즈 부대표

71년생, 삼척고, 서울대 경제학과
한겨레 IT, KMH 경영본부장, 인터볼스 대표이사
현 OMP 대표이사

